

서방 압박에...러시아, 유럽행 가스 공급 차단

푸틴, 나토 동진 막을 법적 보장 요구
미국 강력한 경제제재 경고
나토 동맹국 군사 지원 강화

미국, 유럽 등 서방과 러시아의 긴장이 전방위로 고조하면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에 맞서 유럽행 가스관의 밸브를 켜 러시아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말리는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미국의 확산, 크림반도 사태로 가열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최근 유럽을 겨냥한 친러국가 벨라루스의 '난민 공격'으로 양측의 관계는 한껏 불편해진 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서방이 나토의 동진(東進)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등 비우호적 행동을 계속하면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토의 러시아 국경 인근 접근과 관련, 미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 보장을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무력 충돌과 유혈은 절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길 원한다"면서도 "최소한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명확히 규정된 법적 보장을 원한다"고 압박했다.

또 "우리는 러시아 인근으로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전개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투마니아에 이미 배치됐고 폴란드에도 배치될 예정인 (미국의 유럽 MD 시스템에 속한) 발사대 MK-41은 토마호크 공격미사일 발사를 위해 변형됐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경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으로 약 10만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고,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준비한다는 정보 보고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에서 잇따라 제

기되면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국가의 나토 가입 금지 등의 요구를 담은 마·러간 안전보장 조약 초안과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안보보장 협정 초안을 지난 15일 미국 측에 전달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담에서도 나토의 동진과 타격용 공격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법적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에 대해 가스 공급 차단 카드를 빼 들었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의 가스 공급이 21일 중단됐다. 러시아는 상업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유럽이 가장 우려하던 바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 삼아 지정학적 압박에 대응하게 되면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유럽은 대응할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여파로 이날 유럽 내 가

스 가격은 심리적 경계선인 1000㎥당 2000달러선을 훌쩍 넘어선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 가스 수요의 40%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야말-유럽 가스관은 러시아 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한 주요 수송로 가운데 하나다.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과 푸틴 대통령의 '군사적 조치' 발언 직후 미국과 EU는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미국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해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4년 제재는 특정 러시아 국영기업들이 미국 자본·기술시장 접근을 막아 중장기적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금은 러시아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들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응해 미국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미국 직장인 번아웃 증후군 코로나로 올들어 사표 최대

미국에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사표를 던진 직장인은 4000여만명으로,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사회에 번진 '번아웃'(burnout·심신 소진) 증후군에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겹쳐 이 같은 이탈 행렬을 불러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초부터 10월까지 3900만여명이 퇴사해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이직,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다양하겠지만 구인 담당자들은 직장인에게 닥친 번아웃을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번아웃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다가 심신이 고갈되면서 극도의 피로감과 시달리는 상태를 뜻한다. 특히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국에 직원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가 지난 9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 직장인 1800명 중 75% 이상이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직장 내 복지에서 문제거리가 된다고 꼽았다. 6개월 전 조사에서는 55%였다.

팬데믹 전에도 과로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였다. 갤럽 조사가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인의 일일 근무시간은 평균 1.4시간 증가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집과 일터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일정이 불규칙해지면서 오히려 하루가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 16%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대답했다. 10년 전에 이 비율은 12%였다.

팬데믹 기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소통이 강화되면서 근무 밀도가 증가한 것도 한 몫했다. /연합뉴스

세계 최초 문자메시지 NFT 경매서 1억4천만원에 낙찰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SMS)가 경매에서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경매업체 아퀴트는 21일(현지시간) 경매에서 영국 이동통신사 보다폰이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행한 최초 단문 서비스가 10만7000유로(약 1억4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 문자메시지는 1992년 12월 3일 보다폰 엔지니어 빌 펄워스가 2ke에 달하는 무선전화기 '오비텔'로 동료 직원 리처드 제이비스에게 보낸 15자 문자인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였다. NFT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세계 유일의 진품임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증표다. 매매가 가능한 이 가상자산은 예술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대상으로 발행돼 수집가나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세계 최초 문자메시지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캐나다인에게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폰은 이번 경매의 수익금을 유엔난민기구(UNHCR)에 기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봉쇄 대신 백신패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에펠탑 앞을 지나고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백신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식당과 다수의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 백신 패스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다음 달 중순까지 통과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친중 싹쓸이' 홍콩선거 후폭풍...중국·서방 치열한 공방

미, 우방국 규합 대중 비난 공세
중, 내정간섭 논리 반박 여론전

친중 진영이 90석 중 89석을 휩쓴 지난 19일의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 이후 홍콩을 둘러싼 중국과 서방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지난 3월 홍콩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을 당

국이 심사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한 후 치러진 이번 선거가 저조한 투표율 속에 친중 세력의 압승으로 귀결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이번에도 미국이 대 중국 압박의 선봉에 섰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의 업데이트 버전에서 홍콩의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폐간과 홍콩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충성서약 의무, 선거제 개편 등을 거론하며 "이는 중국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계속해서 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은 같은 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의 민주 법치에 간섭하는 것에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